

2020 오병이어선교회 / 통권3호

풍성한세





하늘에 기록된 이름들

글. 이영남. 오병이어후원회 회장
위드 이사

살롱~

오병이어 선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19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지는 무참하게 무너져 모든 형태의 집단은 신속히 해체되었고 사회적 관계망은 단절되었습니다. 국가간 공조도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오병이어 선교사님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 받기까지 어려운 결단의 과정과 사역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고난과 위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지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선교지의 소식과 만남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환경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모든 것을 홀로 시작했습니다. 설교로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찾아줘야 하고, 소망과 용기를 주며 일으켜 세우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도 돌봐야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도구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품고 돌보는 가운데 사역지 현지인들이 하나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현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지난 사역의 어려움을 위로받고 친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특심을 느끼며 할렐루야로 가슴 벅차오른다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늘 우리를 눈물짓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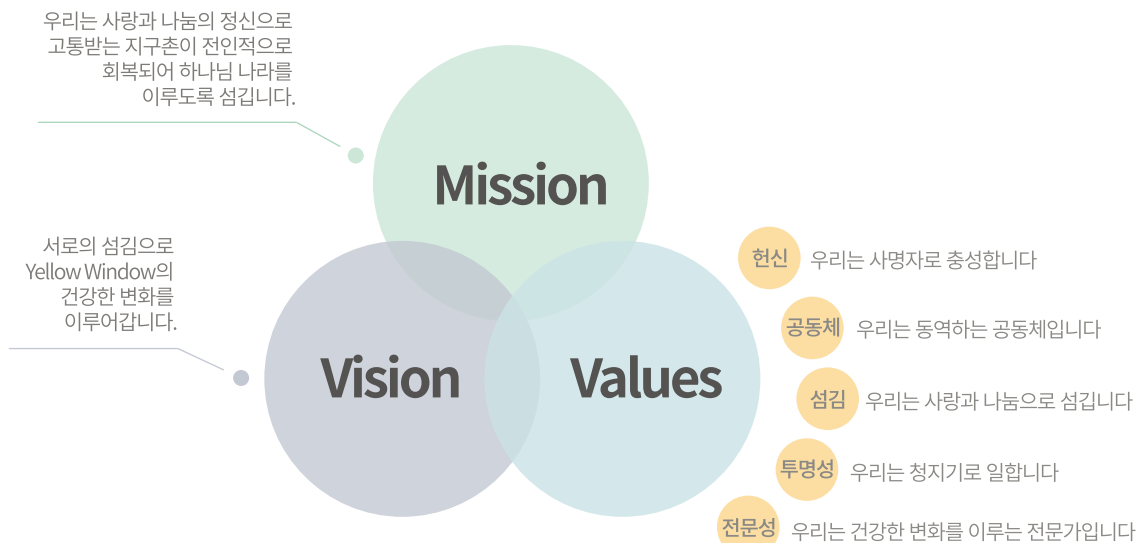
그 고난과 헌신을 많은 분이 보고 듣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적은 물질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세상 풍조는 변할지라도 오병이어선교회, Yellow Window 영양개선연구원, WITH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업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나갔던 70인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던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던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 가족들에게 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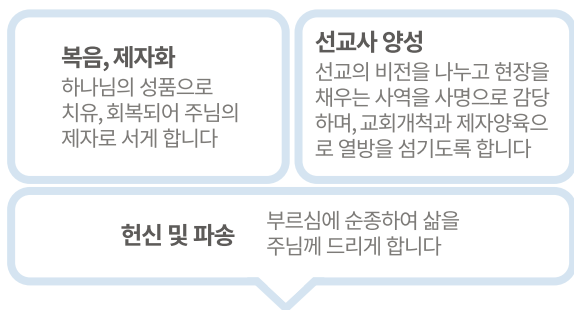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위축된 몸과 마음을 털어내시고, 아름다운 봄꽃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창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선교동원, 훈련,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Mission Strategy 중점전략



총체적 선교



© calli furaha(손주희)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
됩니다.

2020년 통권3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광미란
발행일 2020년 7월 1일
기획 및 편집 오병이어선교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서교동442-5)
수양빌딩 3,4층 (03996)
02.322.4630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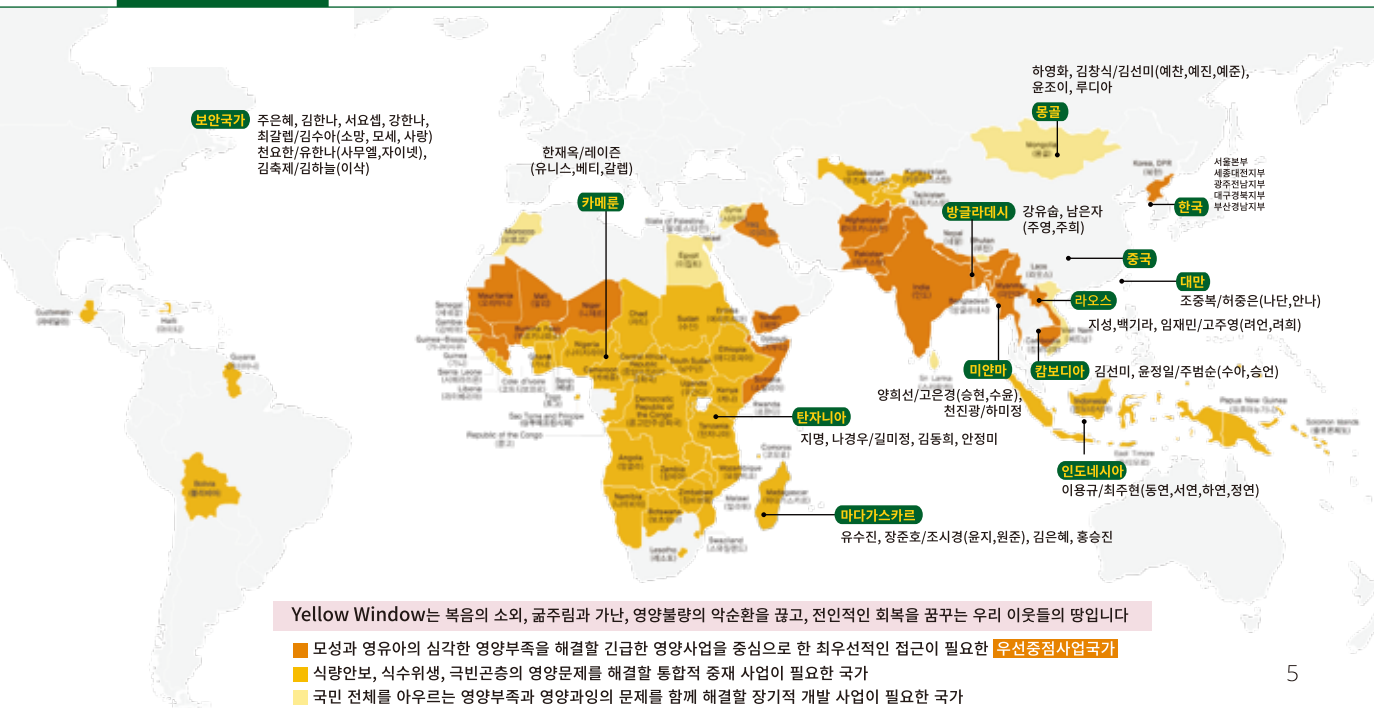


표지_박일화 후원자님 재능기부

Contents

- 03 칼럼 / 이영남
- 06 선교현장 이야기 / 몽골1
- 08 선교현장 이야기 / 몽골2
- 10 선교현장 이야기 / 미얀마
- 12 선교기획시리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선교
- 16 Yellow Window 알아가기 / 탄자니아
- 18 Yellow Window 정탐보고 / 탄자니아_음베아
- 20 오병이어 + People / 임진목, 장연화
- 24 2020 오병이어 뉴스
- 26 오병이어 비전 2036 / 광미란
- 27 오병이어 갤러리 / 윤미희

선교사 파송현황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

몽골 읍스 호수

글. 윤조이. 몽골 선교사

Episode 1

예수님 아세요?

몽골의 벽지 읍스지역에서 사역할 때이다. 복음전파가 0%였던 지역이기에 날마다 영적전쟁을 치러야 했다. “예수님 아세요?” “아니오,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1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고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을 만나는 호기심으로 찾아오곤 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4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택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매주 1회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비전, 인생, 복음 등의 주제를 만들어 토론형식으로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다. 6개월쯤 지나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었다. 4명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본래 밤마다 술 마시고 패싸움을 일삼던 문제아들이었기에 6개월 동안 약속을 지킨 것만도 그들에겐 대단한 일이었다. 약속시간 10분이 지나 한 학생이 찾아와 “그들이 지금 다른 남학생을 때리기 위해 밤새 모의를 하여 패싸움의 장소로 가고 있다”고 전하였다. 나는 주동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1분만 만나고 가라, 택시를 타고 오면 차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2명이 왔다. 손에는 압박봉대를 감고, 눈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두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주동자 한명을 방에 불렀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녀석을 죽이려한다. 오늘 하루만 때리게 해 달라. 오늘 이 거사를 치르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계획을 듣고 나서, “이 순간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복음의 씨, 싹을 내다

그 순간!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 채찍과 고통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왕따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번주간이 고난주간인데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 창피, 무시, 왕따를 당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한번 왕따를 당하면 안되겠니?” 라고 물었다. 몇분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돌었다. “주님, 지금 속히 이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 순간 기도하였다. 잠시 후에, 그 학생은 손에 감은 압박붕대를 풀며, “네, 내가 왕따를 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초의 자리에서 한동안 왕따 자리로 내려와야 했지만 그 이후 이 학생은 변화해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왕좌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일년동안 18명의 친구들을 전도하여 교회 안은 남학생들이 가득차기 시작했고, 동네는 밤마다 조용한 마을이 되어갔다. 옴스 땅에 복음의 씨는 그렇게 싹을 내기 시작했다.

Episode 2

주님은 나의 피난처

팡팡팡! 아침 6시경 누군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열어!” 낯선 남자의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 체인을 건채 빼꼼이 열었다. 그 때 가족지갑을 든 손이 쑥 들어왔다. 그 지갑에는 금속활자로 “몽골정보국”이라고 새겨 있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떨리고 무서웠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십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문을 열고 그분을 거실에 모셔 앉으시라고 했다. “차드시겠어요?” 일반손님이 방문한 것처럼 커피한잔을 대접하였다. 그분이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나라말 할 줄 압니까?” “그럼요, 잘 압니다.” “그럼,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라고 하며 다시 가족지갑을 들어 보였다. “네, 몽골정보국이라는 뜻이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다. 그분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며,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고민이 되었다. 정직하게 대답하면 이 지역에서 쫓겨날게 아닌가? 거짓으로 말하면 선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문제가 되었다.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엄호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시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학교비자로 이곳에 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하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기에 몽골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지역에서 4년간 머물면서 학교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

이 같은 일들은 사회주의 국가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이 찬양을 부른다. 그렇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힘이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의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향처럼 누리며, 주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걷는다.

옵	스	에	서	온	편	지
---	---	---	---	---	---	---

글. 민데바이르. 몽골 현지사역자



몽골 옵스 영원한 사랑교회 어린이들과 민데전도사님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몽골 옴스도 올랑곰에서 영원한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투므르바타르 멘드바이르 전도사입니다. 저는 2010년 처음 예수님을 믿고 2015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여 아내 나랑토야와 큰아들 들궁바이르, 막내아들 터드게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처음 영원한 사랑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2007년에 시작하게 하였고, 2009년에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파송된 윤향숙 선교사님과 홍예문 선교사님, 알통툽수 목사님 가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주셨고, 많은 영혼을 섬기며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옴스도는 극한기후로 겨울에는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 중앙난방을 교회 건물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특별한 것이 있다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닐 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9시에 큐티를 하셨는데,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저도 큐티 시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군대 전역 후인 2012년 큐티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침 큐티에 참여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였고, 지금까지 이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교회와 우리 가족을 위해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길
옴스 올랑곰시에서 민데 전도사 드림



왼쪽부터) 첫째아이들, 민데 전도사님, 나란토야 사모님, 둘째아이들

기도제목

1. 영원한 사랑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2. 교회를 섬기고 있는 팀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3. 이번 여름 교회에 중앙난방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주시길
4. 우리 가정의 영적 섬김과 건강을 위해

Jazz처럼 하나님

Jazz처럼 미얀마

글. 양희선. 미얀마 선교사



오래전 출판된 책 중에 [재즈처럼 하나님]이 있다. 저자는 “처음에는 가까이하기 어렵던 재즈, 그러나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재즈를 좋아하게 된 것처럼, 웬지 어색하고 딱딱하며 자신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미얀마는 ‘재즈처럼 미얀마’라고 말할 수 있다.

1. 신학교(MRPST) 강의, 생각의 자유와 넉넉함

재즈 음악의 특징 중 하나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에 있고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얀마신학교는 내 사상에 일종의 변주가 일어난 곳이다. 미얀마개혁신학교신학교(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School of Theology: MRPST)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세운 학교로, 나는 이곳에서 2013년 12월부터 매 학기 조직신학 관련 두 과목씩 강의를 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9년이 다 되었기에 강의를 위해 다시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현지 신학생들 대부분은 신학 지식은 고사하고 성경을 일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불신자와 초신자도 섞여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토론하기보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소명이 없는 학생들도 있기에 학업 이후 사역을 맡기기도 부담이 된다. 내 미얀마어 실력도 미천해서 시험 채점할 때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잘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만, 현지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 자신의 성장도 감사하게 된다.



좋은발교회 예배현장

2. 좋은발 센터(유치원 및 교회), 의외성에 놀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애드립(ad lib)이라는 음악 용어가 있다. 특별히 재즈의 즉흥 연주를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다. 사실 좋은발 센터 사역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일이었다. 2014년 초에 미얀마개혁장로교단(MRPC)의 관계자 분과 교회개척을 위한 ‘땅’을 보러 지금의 좋은발 센터가 있는 ‘흘레구 다베잉’을 가게 되었다. 그냥 생각 없는 동행이었는데, 그 땅을 갑자기 우리가 맡게 되면서 계획에 없던 일이라 고민하던 와중에 그 해 10월 모 선교회에서 교회개척 헌금 5천불을 들고 비전트립을 오게 된 것이다.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있겠구나 싶어 시간이 될 때마다 땅뺏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2015년 1월 15일, 다베잉을 다녀오던 길에 차량이 반파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도 오른쪽 어깨를 빼고는 크게 다친 데는 없었는데,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 교회건축을 위한 헌금이 부산의 모 교회로부터 들어오고 다른 분들로부터 차량 후원금도 받게 되면서(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4개월간 센터 공사를 진행하여 12월 유치원 오픈, 2016년 5월 8일 주일에 좋은발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다. 유치원 교사들과 동네 아이들 8명이 함께 예배드린 것이 출발점이 되어 4년이 지난 지금, 매주 3,4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른들도 가끔 참석한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 나오는 아이 중에 세례 교인이 나왔으면, 현지 사역자가 결혼해서 더 안정적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은 기다림으로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

3. 직업훈련학교(F&BVT), 소망을 품은 기다림

재즈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개성 강한 연주자들의 합주다. 합주에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인데 전반적인 곡의 조화를 생각하며, 자신의 악기 소리를 전체에 잘 녹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Yellow Window, Myanmar!”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확신과 소망이 없었다면 6년의 기다림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내는 양곤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학과 디플로마 학위를 받았고, 사랑하는 두 자녀와 누린 친밀함은 정말 귀한 선물이었다. 2017년 5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카웅잔과의 우연한 만남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이었다. 인맥이 중요한 미얀마에서 소위 ‘마당발’인 카웅잔을 만나지 않았다면 교육부 산하 기관인 DTVET나 현재 인턴십을 보내고 있는 여러 기업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와 물질과 기도로 현장을 후원하신 분들과의 합주다.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시고, 때론 머나먼 현장까지 오셔서 섬겨주시고, 현장에서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함께해 주셨던 동역자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학교는 현재 3기까지 교육을 마쳤으며, 2기 수료식 때는 미얀마 교육부 장관도 참석할 만큼 잘 정착되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얀마 최초로 직업기술고등학교 과정에 조리학과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 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직업훈련학교 개소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선교(IT선교)

글. 전생명. FMnC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또한, 선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을 따라 창조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 안에 임재하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시작하셨다. 오순절 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새로운 선교 역사를 써 오셨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역사를 써나가실 것을 기대해본다.

4차 산업혁명은 21C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 환경이고, 스마트 선교는 이 시대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선교 중 하나이다. 스마트 선교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스마트 선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기술들을 선교와 융합하여,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는 선교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란 기술을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선교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선교에 참여하며,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선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먼저 산업혁명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와 랄프 윈터 박사님의 개신교 선교 역사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1, 2, 3차 산업혁명과 개신교의 세 번의 선교 시대가 시기적, 지역적으로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지역	발명-활용	사회현상
해안선 선교	1792-1910	영국중심	증기선 등을 활용해서 먼바다로 선교	봉건체제 붕괴, 공업생산-부의 축적, 중산층, 국제교역, 도시성장, 자본가, 노동자 증가
1차산업혁명	1760-1820	영국중심	증기기관(1760), 상업용 증기선(1807)	
내륙 선교	1865-1980	영국, 미국중심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관차/자동차	교통수단발전, 이동의 증가 인류의 평균수명 증가, 세계인구 급증
2차산업혁명	1865-1900	미국, 독일중심	증기기관차(1830), 자동차(1886)	
미전도종족 선교	1934(1976)-?	미국중심	컴퓨터를 활용한 성경번역/ 부족선교/단기선교	세계의 지구촌화, 소통의 확장, 개인의 능력 확장
3차산업혁명	1937(1967)-?	미국중심	여객항공기(1936), 컴퓨터(1937)	

위의 표를 통해서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적인 혁명들이 새로운 선교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사회 전반이 첨단 ICT 기술(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과 융합 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사회의 한 분야인 선교에 이 정의를 적용해 보면, 선교도 첨단 ICT 기술과 융합하면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4차 산업혁명은 ‘연결’, ‘탈중앙화와 분권’, ‘공유와 개방’을 통한 맞춤형시대의 지능화 세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좋은 선교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곧 선교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공유와 개방되어야 하고, 복음을 차단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독재국가의 탈중앙화와 분권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할 수 있다. 또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으로 번역)을 처음으로 사용한 클라우스 슈밥은 그의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은 그전의 세 차례의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속도와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의 충격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말했다. 위의 세 가지 고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이 선교의 영향을 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고, 모든 인류가 온라인상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어느 정도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또한 구글 번역기 등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언어의 한계가 극복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화의 지속은 문화적인 장벽을 점차 허물고, 언어가 다른 종족들도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선교의 큰 장벽이었던 문화적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 선교의 문턱을 낮추셨다. 그리고 4번째 산업혁명을 통해 획기적으로 선교 문턱을 낮추실 것을 전망해 본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28:19)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너희’는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결과들을 활용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한 시대에 살게 된다. 이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7억 명이 모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타 문화 영혼들과 나눈다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지상 위임명령에 헌신하는 것을 꿈꿔 본다.



Tanzania

탄자니아





국명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독립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4년 탕가니카, 잔지바르 합병하여 탄자니아합중국 탄생 (외교부)
수도	공식수도_도도마(Dodoma) 경제수도_다르에스살람(Dar es Saalam)
면적	947,303 km2 (남한의 약 8.6배) (CIA, 2020)
행정구역	총 23개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는 소규모 행정구역(도시 및 농촌)으로 세분됨, 총 119개의 행정구역과 다르에스살람, 므완자, 음베야, 탕가, 아루샤 등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음 (세계농업, 2013)
인구	5,973만 4,218명 (세계 24위) (통계청, 2020)
종교	기독교(44%), 이슬람교(36%), 토속종교(20%), 잔지바르(이슬람교 99%) (GlobalEconomy, 2013)
언어	스와힐리어, 영어(공식) 외 아랍어(잔지바르에서 널리 사용), 부족 언어 등 (CIA, 2020)
경제	GDP(per capita) \$3,200 (CIA, 2017), 빈곤율 43.5% (World Bank, 2012)
종족	129개 종족 (외교부)
교육	초등학교 졸업률 68.7%, 중학교 진학률 29.4% (Global Economy, 2018)
보건영양	- 저영양상태 인구비율 30.7% (World Bank, 2017) - 영아사망률 36.4명/1000명당 (CIA, 2020) -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비율 (Underweight) 13.7% (WHO, 2015), 성장부진비율 (Stunting) 34.5% (Global nutrition report, 2016) - 성인의 과체중 및 비만율 35.9% (Global nutrition report, 2016) - 안전한 위생시설 이용률 30% (Global nutrition report, 2017) - 안전한 식수 이용률 57% (Global nutrition report, 2017)

★ 음베야 Mbeya

위치	탄자니아 서남쪽에 위치하며 말라위, 잠비아와 접경을 이루는 주
GDP	약 \$3,156, 4위/23개주 (Mbeya kwa namba)
교육	- 초등학교 이수율 86% (MBEYA REGION Socio-Economic Profile, 2014) - 초등학교 교실부족 비율 38% (MBEYA REGION Socio-Economic Profile, 2015) - 보건영양_성장부진비율(Stunting) 33.8% 12위/23개주 (CSIS Global Food Security Project, 2018) - 성인의 과체중 및 비만율 43% 6위/23개주 (CSIS Global Food Security Project, 2018) - 안전한 위생시설 이용률 34% (Mbeya Region Social-Economic Profile, 2015) - 안전한 식수 이용률 65.3% (Mbeya Region Social-Economic Profile, 2015)

기도제목

- 스와힐리어권의 중심에 있는 탄자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며, 더욱 열악한 아프리카의 다른 접경 국가와 지역으로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탄자니아 땅 가운데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부와 학교, 학부모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음베야 지역의 학령기 아동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학교급식의 모델이 세워지게 하소서
- 음베야에 소망을 품고 헌신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땅의 선한 영향력을 통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소서
- 우리 사역자들의 탄자니아와 음베야 지역 출입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비자 문제로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소서

소외된 다음세대의 전인적 변화를 꿈꾸다

글. 서연경. 위드 전략연구팀장, 11기 NIS 총괄



11기 NIS 현장사진

11기 NIS 정탐보고

- 탄자니아 음베야 지역 학령기 아동 대상 지역영양수요조사 -

기간: 2020.1.7.(화)~2.9(일), 5주

위드는 2011년 탄자니아 지부를 설립하고, 모로고로 지역 학령기 아동의 보건영양증진을 위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형 학교급식모델로서 생명의 빵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탄자니아의 지역별 다양성에 따른 필요를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섯 차례 음베야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러던 중 우선적으로 제안된 ‘학령기 아동의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개선’에 대해 타당성과 지역의 요구도를 조사, 평가하고자 올해 1월, 11기 식생활영양개선전문가학교(NIS, Nutrition Intervention School)를 훈련생 5명과 함께 음베야 지역에서 5주간 진행하였다.

음베야는 본토의 26개 주 중 하나로 계절이 뚜렷하고 풍부한 강수량과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신이 내린 농업 특혜 지역’이라 불리는, 그야말로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따라서 식량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 문제로 인해 음베야주 내 7개 지역 중 두 곳은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령기 이전 5세 미만 아동의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나타내는 성장부진(stunting) 또한 33.8%로 심각한 수준이고, 초등학교 졸업률의 경우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여전히 23%의 아동이 초등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IS 팀은 학교급식의 요구도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먼저 음베야 시내에 있는 2개 학교(음발리치 2 초등학교와 마게우지 초등학교) 전학년 1,867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진행하고, 7학년 아동 214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부와 식량 불안정 상황, 식습관과 식사다양성, 식수 및 위생, 개인위생 및 질병 상황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자그룹인 학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초점그룹토의를 실시하였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식량 및 영양관련 국제기구(USAID Feed the Future)와 모로고로 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아동의 가구내 식량 불안정의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비율이 44.3%, 식사를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비율(9개의 식품군 중 4개 이하의 식품을 하루 동안 섭취하는 비율)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성장부진율이 21.2%로 영유아에서 시작된 성장부진이 학령기에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저체중 비율(underweight)은 2.7%인데 반해 과체중 또는 비만의 비율이 7.3%로 평가되어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이중부담이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보건영양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학교 두 곳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기획하고 실습하였다.

먼저 일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단가가 낮아 가장 쉽게 제공하는 ‘마칸데(콩, 옥수수, 양파, 소금, 기름을 함께 넣어 삶아 먹는 가장 흔한 현지식 메뉴)’라는 현지식 메뉴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 안에서 사골옥수, 땅콩, 당근, 피망, 토마토 등을 첨가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열량과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새롭게 개발하였고 2,100여명의 아이들에게 한끼의 점심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 위생 교육과 다양한 식품을 맛보는 오감교육 내용을 계획하고 영양캠프를 통해 7학년 아동들에게 실습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켰고 특별하고 새로운 교육과 급식을 경험한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장과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1기 NIS팀이 음베야 지역을 품고 조사하며 발견한 것은 음베야의 풍요로운 자연환경 안에서 여전히 소외된 다음 세대 학령기 아동을 건강하게 세우고 전인적 변화를 이끄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자니아 국민 중 학령기 아동(5~19세 미만)의 비율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와 음베야 지역사회 리더, 학교장, 학부모 모두 학령기 아동의 교육과 영양,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아이들의 교육수준과 식습관이 개선되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어 변화를 주도하는 통합적 학교급식모델’이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의 영양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과 보건영양, 교육, 식수 및 위생, 사회안전망의 다섯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학교는 교육의 장이자 급식과 함께 보건, 영양, 위생 교육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건강 증진의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음베야 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 학교급식 모델을 세워나간다면, 먼저 학령기 아동의 교육률이 증가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며, 가정과 지역사회는 다양한 식재료 공급 및 유통을 통해 식품 다양성이 향상되고 소득 증대와 함께 현지작물시스템이 강화되며, 정부는 교육성과 개선, 보건비용 감소, 농업 다변화 및 국가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국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의 기쁨과 감격

글. 박정미, 금파초등학교 영양교사

할렐루야!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대 초 경기도의 몇몇 영양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신우회 예배로 1년에 두 번씩 드리던 예배가 이제 여름 예배는 전국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로 성장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08년 7월 12일(토) 제1회 전국 학교영양사 연합예배로 드렸던 때가 아직도 제 맘과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바쁘고 때론 외롭게 지내며 일하던 영양(교)사의 자리가 저의 몸과 마음, 영혼을 지치고 힘들게 하던 그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잘한다, 괜찮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영양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5년 학교 영양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급식 일의 고단함과 힘겨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 직장 내 누구와도 온전한 소통과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양사 직업에 회의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한 제게 한 언니(경기도 학교 영양사 신우회인 어부의 그물을 만들고 예배를 시작한 분입니다)의 소개를 통해 2003년 여름 예배부터 신우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예배가 지금은 제 인생 1순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어떠한 힘도, 의욕도 생기지 않는 제게 신우회 예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어쩔 하나님 께서는 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강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하여 제 상황에 꼭 맞는 말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이처럼 많이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영양사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제게 영양교사의 정체성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건강 먹거리, 하나님 이 창조하신 자연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 일이 제 천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영양 교사의 일을, 그토록 예쁘지 않았던 사람도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씩 저를 바꾸어 가셨 습니다. 늘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던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독이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식품영양 전문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직업군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학교 영양교사로 섬기게 하실 그 날까지 주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기대하며 우리 안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하심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쪽부터)
2004년 영양사 영성수련회(전국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전신),
2004년 수련회 후 식사중인 박정미 선생님,
2017년 예배 후 신우회 선생님들과,
2019년 전국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단체사진

우리는 모두 함께 걸었고, 걸어갈 것이다

글. 임진묵. 워드 대전세종지부장

작년 여름 중학교 교사인 나는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아이들과는 예술캠프로, 현직 선생님에게는 세미나로 만나길 원한다는 요청을 받고 존경하는 두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그들을 만나고 왔다.

마다가스카르에 가기 전에는 ‘과연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내용이 현지 선생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래서 도착 후 가장 먼저 초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했다. 6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교과서도 없이 먼지 쌓인 교실에 빼곡히 앉아 있었다. 어떤 날은 교사가 분필도 직접 사서 써야 했고, 방학이면 월급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직업을 찾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학을 가르치시는 한 선생님의 수업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교사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그 분들과 교사로서의 꿈을 나누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말하고, 수업방법을 공유했다. 선생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고, 즐거워해주시고, 다시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 하셨다. 올해 2월에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마다가스카르 지부에서 진행하는 토요학교의 선생님들과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다.

기독교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목말라하는 그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그 만남**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를 찾았고 교사로서 느끼는 가장 보람 된 순간 중 하나였다. 마지막에는 내가 드린 오병이어가 그들에게는 오아시스가 되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객체가 아닌 교육 주체가 되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걷고 있다. 그런데, 나는 마다가스카르에 홀로 간 것은 아니었다. 주변 분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요청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셔서 풍성히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었고, 또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과도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마다가스카르에서 했던 말로 전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희망이라고 부르신다.

당신이 마다가스카르의 **희망**이다."





오른쪽 위부터 왼쪽으로)

현재 장연화 선생님, 6기 PMTS 몽골비전트립 조리시연,
7기 PMTS 관련_인도네시아 비전트립 중 두 컷, 훈련중 강사님과 함께



나를 다듬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글. 장연화. 신명보육원 영양사

인생의 곤고함으로 인해 어려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찾아 대학 4학년때 다시 교회로 향했고, 스물일곱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여러 모양의 직업을 찾아다녔어도 공통 목적은 '직업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다.

뒤늦게 전공인 영양사를 하면서 오병이어 선교회를 알게 되었다. 양상한 북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후원 요청 유인물을 보고 '차 몇 잔만 안 마시면 어린이 한 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는 감동으로 직장동료와 친구를 권면하여 시작한 후원을 계기로 6기 PMTS (전문인선교훈련과정)의 권유를 받아 직장을 내려놓고 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 도중 열리지 않던 나의 내면에 벽이 시원하게 뚫리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이후 잠시 국내 본부 간사로도 섬기면서 오병이어 선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나의 의지를 드리고 또 드렸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의 영양사로서 생활한 경험을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신명보육원에서 모두 사용하게 하시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

후원자로서 그리고 부르시면 가야 할 것 같은 빛진 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준비하며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 까지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영양사의 가치를 알게 해준 오병이어선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국내소식 및 광고

선교사 파송

2020년 2월 20일(목),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_라오스로 나아가는 임재민, 고주영, 러언, 려희 선교사 가정의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8월 20일(목)에는 이 가정과 지성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송성아 예비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WCS 전인공동체학교

37기 WCS(DUO)가 2020년 5월 18일(월)-7월3일(금) 7주간 서울 전인교회 교육관과 공동체 숙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가정과 한 형제가 수료하였습니다. 38기 WCS는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를 세우는 훈련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맛나캠프

인터서브 원코리아팀과 협력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맛나캠프'가 5월 23일(금)-24일(토) 진행되었습니다. 영양교육, 영양판정 및 조리실습, 영양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돕고, 섬기며 교제하는 귀한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4주년 감사예배

2020년 8월 20일(목) 저녁 7시에 오병이어선교회 34주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NIS 식생활영양개선전문가학교

11기 NIS가 2020년 1월 6일(월)-2월19일(수)까지 탄자니아 음베야, 모로고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5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였고, 특별히 음베야 지역 개척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영양활동가

27기 국제영양활동가가 6월 6일(토)-7월 1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5주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보건영양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속에 총 23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8기 국제영양활동가가 대구지역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

식품영양학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1회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는 10월 31일(토)에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모임

IFNee(International Food&Nutrition)

아이쁜이 캠퍼스모임

국제개발, 보건영양, 전문인선교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스터디, 식문화체험 및 중보기도하는 캠퍼스모임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학기중에 열립니다.

직장부 모임

크리스찬 식품영양관련 직장인들의 모임입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pm7시에 있습니다.

지부 모임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지부에서는 매월 1회 라마나웃 스터디, 세계관스터디, 책나눔 등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소식 및 광고

몽골 Mongolia

몽골 유치원 취학 어린이를 위한 식품 및 위생용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1월 27일부터 시작된 몽골 유치원의 휴교령이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의 식사 섭취의 기회마저 없어져 영양 부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25,000명의 어린이가 부모의 실직, 식재료 부족 등으로 인해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드는 KOICA 민관협력사업인 '울란바타르시 영유아 영양급식관리지원사업'의 코로나 긴급대응활동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단회성이 아닌 총 8회의 식품 및 위생용품을 시범사업장인 117번 유치원의 취학아동이 포함된 100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지원은 쌀, 밀가루, 감자, 당근, 토마토, 기름 등 기본적인 식재료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영양을 고려하여 우유와 아를(유제품)을 공급하고, 조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가능한 완제품(빵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현지교회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몽골에 있는 많은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윤조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 협력 산돌교회에서는 부활절에 감시 공무원에게 걸리면 앞으로 교회가 폐쇄되는 위험이 있지만 새벽이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중심이 되는 성도들과 청소년들 15명이 아침 7시에 교회에 모여, 커피를 가지고, 난로연통에 연기가 나면 안된다고 불도 피우지 않고 숨죽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중에 성찬식과 아디아 자매의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날 모인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흠어진 예배자들이 하루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미얀마 Myanmar

중퇴청소년 대상 식음료분야 직업훈련(F&BVT) 사역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교육(제과제빵, 조리외식서비스, 음료과정)을 마친 3기 학생들은 12월 한달간 59명이 직업훈련학교와 연결된 업체들로 인턴십을 나갔습니다. 이 중 성적 및 인턴십을 완료한 학생 56명이 2020년 1월 31일에 수료를 하였고, 2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계속해서 많은 중퇴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은발 센터_코로나19 긴급식량 나눔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 경제활동이 멈춘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걱정이 더 높아지고 6월부터는 경제가 침체되는 우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상황

은 더 좋지 못한 가난한 종은발센터의 이웃들에게 쌀 다섯 가마니를 사서 지난 5월에 30가정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끼 분량밖에는 되지 않기에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도움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저마다의 꿈마다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교육과 성장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하는 '코치'의 역량강화를 위해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의 코치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역량강화교육에는 세종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진록 선생님이 주 강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WIS (WITH International School)_코로나19 긴급구호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WIS에서 지역사회 활동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긴급구호활동을 하였습니다. 5월 5일 안카디부리 지역 주민 100가정에 쌀 10kg, 식용유 1L, 설탕 500g, 비누 8개, 양초 6개 지원하였고, 5월 16일 암부히찌루아 교회 저소득층 교인 100가정에 쌀 10kg 지원하였습니다. 6월에는 12일 수도에서 40km 떨어진 북부 외곽지역의 AMPANOTOKANA 마을의 갯세마네 요양원 환우 35가정과 사역자 5가정에 담요, 식용유, 석탄을 ANOSIALA마을의 지역주민 120가정에 쌀과 담요를 지원할 예정이고, 16일 TANJONVATO 마을의 살롬고아원 원생 40명에게 담요와 간식을 지원 할 예정 입니다.



탄자니아 Tanzania

마스크 제작 교육 및 나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현지인 미싱사들에게 마스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고 만들어 약 200개의 마스크를 이웃과 교회에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오토바이 운전사들을 초대해서 마스크를 나눠주며 사용법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림 성경책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Cambodia

소망의 새빛교회

지난 1월 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삼일교회 단기팀이 소망의 새빛교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캠프와 청소년예배 및 환경미화 등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줄리엄수어~'하며 사랑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며 섬기는 모습,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청소년, 청년들의 따뜻한 교제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새빛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성령충만케 되어 예배, 기도, 전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 안식관 및 교육훈련센터 마련을 소망하며

글. 광미란,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오병이어선교회는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근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련된 미션홈이 있다. 해외 사역 중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미션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다. 합정동 미션홈에 머무는 선교사님들은 인접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산책코스 삼아 걸으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한 분 한 분 삶을 보면서 소중한 헌신을 재발견하며 도전받는다고 한다.

오병이어선교회 30주년을 기점으로 2036 비전 프라미스를 정하면서 그중 다섯 번째 항목인 은퇴 선교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오병이어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교육훈련장소로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도 사용되어 양화진 묘원처럼 선교의 삶을 마지막까지 씨앗으로 심는 장소가 되길 소망하며 비전을 공표하였다. 짧은 시절 오병이어 선교사로서 소명을 다한 지체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가족 신앙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병이어 초대 회장인 이용숙 선교사님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시작되었고 이영남 오병이어 후원회 회장님이 이 일을 사명으로 순종하고 헌신으로 섬겨 주심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오병이어 34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후원금 마련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오병이어후원회(가칭) TF팀이 발족 되어 유수미 오병이어 해외 선교위원이 팀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위해 기도과 구체적인 접근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선교사가 건강해야 사역도 건강해진다. 선교사 개인이 영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멤버 케어의 기본이다. 선교사가 건강하면 사역의 열매는 자연히 보게 되어 있다. 오병이어 선교사 안식관 및 교육훈련센터 마련은 선교사 멤버 케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대를 세워가는 공간으로도 쓰임 받을 것이다.

선교사 안식관, 교육훈련센터, 교회, 요양원 시설 등 소망하는 다양한 공간이 오병이어 가족공동체를 준비하는 약속의 장소가 될 것이라 기도하며 기대한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 심고 물주는 믿음의 순종과 헌신에서 오병이어 가족공동체를 위한 준비는 기다림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오병이어 2036 비전 프라미스로 주신 이일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많은 분의 동참과 풍성한 손길로 채워지길 소망한다.



‘오병이어 안식관 및 교육훈련센터’를 꿈꾸며

오병이어 Gallery

마다가스카르 윤미희 선교사가 사역기간 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을 묵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아프리카의 벚꽃으로 유명한 보라색 자카란다
행운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고 한국의 벚꽃처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유명한 꽃이다.
보통 9월~10월에 피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동안
윤미희 선교사가 가장 사랑했던 꽃 중에 하나라고
한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지내면서 이 꽃을 보면
행복해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풍경은 바로 파란하늘과
푸른잔디, 황토빛나무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한다.

웅장한 바오밥나무 밑에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들이 인상적이다.

오병이어선교회 후원안내

지	금	여	기
우	리	함	께
나	누	어	요

오병이어선교회 후원

국민은행 479037-01-005606 (사)위드

영성훈련센터와 은퇴 선교사 안식관 건립을 위한

오병이어선교회 후원회 후원

하나은행 276-910016-75307 이영남

선교사 후원

선교사 개별 후원계좌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322. 4643

